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 집회는 3남, 5여 선교회 주관 예배입니다.  
8월 수요일 집회는 사도행전을 공부합니다. 김재홍 목사가 인도합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2일(금) - 15일(월) 일정으로 천안 단비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은 비와 무더위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쉽습니다. 시간을 정해 기도와 말씀묵상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식 당 봉 사 :	유경순 이은옥 최경미 이수정b이은정 최재욱 김윤수
8/14 식 당 봉 사 :	장혜숙 박성실 원인해 정경례 심상숙 이선희 김신옥 이건식 최영혜
오늘설거지봉사 :	류준모 심호선 한대훈 박시내
다음 주 설거지 :	최재욱 이수정 최경미 김정우
떡 대 접 :	윤여민 임보람 (윤하빈 돌)
새 교 우 :	이찬미(청년부) 현진실(7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일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31(통46). 찬양하라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참된 안식과 삶의 바탕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복잡하고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채우기만을 신경 쓰고 살아왔던 우리가 비움을 통해 참된 평안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거친 세상 풍파에 휩쓸려 삶의 벼랑 끝에 서게 된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수해로 가족과 집을 잃어버린 이들, 개발논리에 밀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들, 함께 사는 세상을 열기 위해 벼랑 끝의 삶을 자처한 이들, 이들 모두의 절규를 들어 주십시오.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갈구하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마11:28-30 ..... 인도자  
 ♣ 교 독 문 ..... 57. 시편130편 ..... 다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한상익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양 ..... 370(통455).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다함께  
 ♣ 성경봉독 ..... I. 막6:30-32 ..... 김태환 선생  
 II. 신1:29-33 ..... 김 극 집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찬 양 ..... 찬양대  
 말 씀 ..... I. 한적한 곳으로 ..... 김재흥 목사  
 II. 길 위에서 주를 뵈다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함께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장영숙 이성운 한완식 임정자 조병무 송양진 방문성  
 박혜경 한상익 정영선 김인걸 문영혜 강순배 김민화 김정애b 김희진  
 박홍재 문복순 최현선 박규석 박경선 방민준 배삼순 권호진  
 이한림 김명희 임고운 임승동 백혜숙 김남종 오복순 정현희 정선희  
 박권동 이영우 양재성 임미심 김세룡 이용숙 강세기 이소애 김보라  
 박진혁곽새롬 무명2

### 월정헌금:

권미정 권혁신 김지운 박범희 박미영 왕수명 윤성종 김윤정 이동천  
 이성범 이소순 장재영 김재영 이민범 이윤석 박안수 장동훈 정은선  
 이영우 김승현 김수진 홍복선

### 감사헌금:

양재성 임미심 박석희 조항미 고재중 강순배 김중수 이순정 곽권희  
 이한림 김명희 김정애 권혁신 오송경 송동준 김진경 김정민 이해령  
 현우영 무명9

### 녹색꿈헌금:

윤여민 임보람 민병배 문현미 현우영 임승동 백혜숙 무명

### 생일감사헌금:

이성운 권미정 오현정

	장혜숙	백혜숙		
	노순옥	정경례		
	임정자	최경미		
	문영혜	이명희		
	안정숙	진정숙		
	박홍재	곽권희		
	박효선	허정운		
	이순정	김금순	심	심
	이형숙	권미숙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이현숙		
	이영란	박미영		
	박혜경	조항미		
	김재흥	오자영		
	김기석	이건식		

## 그대에게 가는 모든 길

백무산

그대에게 가는 길은 봄날 꽃길이 아니어도 좋다  
 그대에게 가는 길은 새하얀 눈길이 아니어도 좋다/  
 여름날 타는 자갈길이어도 좋다  
 비바람 폭풍 벼랑길이어도 좋다/  
 그대는 하나의 얼굴이 아니다  
 그대는 그곳에 그렇게 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일렁이는 바다의 얼굴이다/  
 잔잔한 수면 위 비단길이어도 좋다  
 고요한 적요의 새벽길이어도 좋다  
 약자한 저자거리 진흙길이어도 좋다/  
 나를 통과하는 길이어도 좋다  
 나를 지우고 가는 길이어도 좋다  
 나를 베어버리고 가는 길이어도 좋다/  
 꽃을 들고도 가겠다  
 창검을 들고도 가겠다  
 피흘리는 무릎 기어서라도 가겠다/  
 모든 길을 열어두겠다  
 그대에게 가는 길은 하나일 수 없다  
 길 밖 허공의 길도 마저 열어두겠다/  
 그대는 출렁이는 저 바다의 얼굴이다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보라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찬양	.....	새교우
♣ 봉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사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사십시오.		
다함께 : 아멘.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 정신이 팔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복을 차분히 헤아리며 살겠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복	.....	김기석 목사
<b>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b>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주관 예배 3남, 5여 선교회	사도행전 / 김재흥 목사 기도 : 오현정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공동기도	안현 선생
	김기석 목사	김인걸 장로	김재영 집사

8월	영접위원	김인걸 홍순구 박규석 최영혜 안홍숙 박경선
	헌금위원	방문성 유경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지혜를 주는 나무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산수유나무가 샛노란 손을 흔들며 제일 먼저 인사한다. 모든 것이 죽은 듯이 보이던 잿빛 대지 위에 꽃을 피우는 나무들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다. 그들은 생명을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며 또 얼마나 끈질기며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봄마다 우리에게 보여 준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들여다보면 나무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많이 일깨워 준다.

모과나무 잎이 가지 위에 하나씩 돌아나는 걸 보면 거기에도 일정한 순서가 있다. 오른쪽에 잎 하나를 내면 반드시 왼쪽에도 하나를 내고 그 가운데 또 하나를 낸다. 해 뜨는 쪽으로 잎을 내면 해 지는 쪽으로도 꼭 한 잎을 내곤 한다.

나무들이 잎새 하나를 내는 데에도 그 속엔 정교한 질서가 있다. 그걸 잎차례라고 한다. 잎을 내는 순서 때문에 싸우지 않고 순리를 따른다.

튼실한 과일이 열리는 복숭아나무, 사과나무는 나뭇가지를 하늘 쪽으로 너무 높이 올리지 않는다. 가지 하나를 키워도 굵고 튼튼하게 키운다. 흙의 향기를 잊지 않고 뿌리 내린 대지를 멀리 떠나지 않는다. 하늘을 향해 너무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는 나무에는 실속 있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늘로 하늘로 치솟기만 하는 가지는 허약하며, 허약한 꿈의 나무는 큰 과일을 가질 수 없게 마련이라는 점을 과일나무들은 알고 있다.

일찍이 신경림 시인은 [나무]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나무를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반듯하게 잘 자란 나무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나고 큰 나무는  
제 차례 하느라 오히려  
좋은 열매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한 군데쯤 부러졌거나 가지를 친 나무에  
또는 못나고 불품없이 자란 나무에

보다 실하고

단단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나무를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우쭐대며 웃자란 나무는

이웃 나무가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햇빛과 바람을 독차지해서

동무 나무가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을

훼방한다는 것을

그래서 뽑거나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이 사는 일이 어찌 꼭 이와 같을까마는

사람 사는 일이 나무가 자라는 것과 꼭 같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 잘나고 큰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는 데 비해 한 군데쯤 부러졌거나 가지를 친 나무에 더욱 실하고 단단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자만하지 말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우쭐대며 웃자란 나무도 마찬가지로 자라는 것이다. 곁에 있는 나무가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 나무는 뽑혀지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오랜 날 같이 일하다가도 원수보다도 더 미워한다. 그러나 나무는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둥치가 굵어지면 자연스럽게 줄기가 갈라진다. 한겨울에도 푸른빛을 잃지 않는 소나무도 그렇고 단단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박달나무도 그렇다. 햇빛을 받고자 하는 방향 때문에도 갈라지고, 바람에 쓰러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도 갈라진다. 그러나 갈라졌다고 서로 미워하거나 해치지 않는다. 서로가 한 뿌리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무를 가까운 곳에 심어 두고 사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고, 나무가 자꾸만 사람 사는 곳으로 내려오고자 하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